

전일동향

전일대비 2.90원 하락한 1,466.3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90원 하락한 1,466.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0원 하락한 1,467.00원에 개장했다. 오전 장에서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1,467.70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위안화 절상 고시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어 1,46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다만, 달러 강세 되돌림 분위기에 환율은 낙폭을 반납하며, 1,466.3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3.7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7.00	1468.10	1462.20	1466.30	1465.30
	엔화	980.02	980.44	972.54	973.50	-
	유로화	1585.22	1586.29	1575.10	1576.55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3	-5.24	-13.23	-27.58
	결제환율(수입)	-0.12	-4.4	-11.45	-24.2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자동차 관세 부과에...1,46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6.30) 대비 2.50원 상승한 1,466.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상호관세 부과를 재확인하면서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지 불분명하다고 하며, 관세 부과와 2차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달러화는 미국의 관세 발표 및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0.31 상승한 104.54pt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유로화, 파운드화 및 엔화는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증시 급락 등 위험회피 분위기도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네고 물량 유입 및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 등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4.00 ~ 1473.6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503.8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50원 ↑
	■ 美 다우지수 : 42454.79, -132.71p(-0.3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3.0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26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